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수반한 원자력 재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일상. 저희의 전시는 그것이 재해로 인해 사라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 일상을 다시 바라보다 -

동일본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연수 프로그램 (옵션)

20명 이상의 단체 손님 대상 사전예약 필요, 입관료와 별도로 연수를 위한 요금에 필요합니다.

필드워크 소요시간: 60분

내용: 전승관이 위치한 후타바마치와 옆 마을인 나미에마치의 피해를 버스로 돌아봅니다. 복합재해와 부흥 상황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수 이야기꾼의 담화 소요시간: 40분

내용: 이야기꾼이 스스로의 체험에 더해 지진 당시와 원자력 재해, 부흥의 개요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장소: 1층 연수실 등 (별도이용료 필요)



東日本大震災・原子力災害伝承館



【双葉駅후타바 역】에서 약 2km, 도보로 약 25 분. 후타바 역에서 출발하는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5 분).
【東京駅도쿄 역】에서 가장 가까운 후타바 역까지 특급 히타치 이용에 약 3 시간 10 분
【仙台駅센다이 역】에서 가장 가까운 후타바 역까지 특급 히타치 이용에 약 1 시간 20 분



Google Maps

이용안내

우편번호 979-1401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후타바마치 나카노 다카다 39

운영 시간 9:00~17:00 (최종 입장 시간 16:30)
휴 일 매주 화요일, 12월 29일~1월 3일
입 장 료 성인 600엔 초중고생 300엔
미취학아 무료(20명 이상) : 성인 단체 480엔 초중고생 단체240엔

주 차 장 일반 자동차 110대, 대형 버스 10대를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궁금하신 점은 다음의 전화또는이메일로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의 +81(0)240-23-4402
이메일 문의 archive@fipo.or.jp
https://www.fipo.or.jp/lore/kr

(2025년 7월 현재)

동일본 대지진 · 원자력 재해 전승관

福島県 Fukushima

東日本大震災・原子力災害伝承館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Memorial Museum

그날의 경험

미래에 남길 교훈



쓰나미로 변형된 소방차



원자력발전소 사고 전, 후타바마치에 걸려 있던 원자력 홍보용 문자 패널(복제품)



전승관의 외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미증유의 복합재해를 경험한 뒤 부흥으로 가는 길을 걸어온 후쿠시마의 기록과 기억을 재난 방지와 재난 경감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 미래로 이어간다.

관내 이야기꾼의 담화 소요시간: 40분

개인 대상 영업일에는 매일 4회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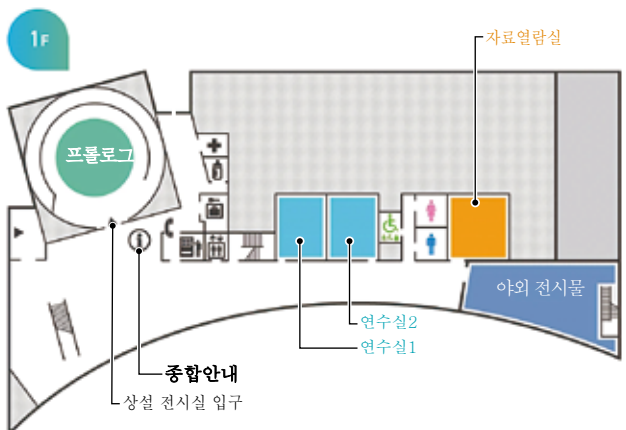
내용: 지역주민이 이야기꾼이 되어 재난체험과 생각, 재해 대비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꾼의 연령과 재단을 겪은 장소 등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시간: 10:00~, 11:15~, 13:15~, 14:30~

장소: 2층 워크숍 스페이스

정원: 27명(선착순, 예약 불가)

요금: 입관료 필요



저희는 동일본대지진과 원자력 재해에 관하여 재해 발생 전의 지역상을 나타내는 자료, 재해발생 당시 및 그 뒤의 피난생활을 나타내는 자료 등을 약 30만점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50점을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투어시간 >>> 60분부터
스토리텔러의강연 >> 40분

東日本大震災：
原子力災害
伝承館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Memorial Museum



프롤로그 (도입 시어터)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조합한 영상을 통하여,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재해를 더 가깝게 받아들이기’, ‘후쿠시마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미래에 계승’ 한다는 2개의 메시지를 방문객에게 전하고 지진, 사고, 부흥, 앞으로의 미래에 관하여 생각할 계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1. 재해의시작

재해 전의 일상부터 지진과 지진 해일, 뒤이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발생까지를 시계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 소마·후타바 지역의 문화와 생활, 원자력 발전소와의 관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에 대해서는 지진 해일의 위력을 드러내 주는 실물 자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는 영상, 사고 직후의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재현한 모형틀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 재해 관련 타임라인



지진과 쓰나미 기록(영상)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빼앗긴 평온한 일상에 대한 여러 현민들의 심경을 나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역 생활과의 이별, 변화’ 나 ‘즐거웠던 학교 생활, 갑작스러운 헤어짐’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중년 영상과 추억의 물건의 전시를 통해 전합니다.

3. 후쿠시마현민의 마음



가와우치 마을의 한 학교 칠판에 도미오카 피난민들이 남긴 감사 메모



4. 장기화되는원자력 재해의 영향

장기화되고 있는 원자력 재해의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비산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뜯소문의 불식, 장기 대피, 건강에 관한 대응 등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의 설명 영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감상전 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 기계



모든 포대의 쌀 방사능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 모형

2. 원자력발전소사고직후의대응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의 혼란과 대피 장소를 전전하는 힘겨운 생활, 일본 국내와 해외의 반응과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간의 실상 등을 알려주는 대화면 영상과 입원 환자들의 혹독한 대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을 통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한 주를 돌아보며(동영상)



해외에서 보내온 격려의 메시지

5. 부흥을 향한 도전



지역 재건 노력 및 페로 프로젝트 작업 진행 상황 소개

난관을 극복하고 부흥에 도전하는 후쿠시마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로 작업의 설명, 이상적인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 조성 시뮬레이터’, 최첨단 기술 소개로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전시 등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